

# 韓國의 跳躍的 발전에

## 各國代表 큰 감명

王 仁 權

〈서울大農大教授·農村社會學〉

— 第 8 次 아시아 地域 國際 訓練 및 開發 會議 —



〈오른쪽이 筆者〉

지난해 11월 11~21일 사이 6일간에 걸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에서「제8차 아시아지역 훈련 및 개발기구의 국제훈련 및 개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王仁樞 교수는 “연구개발의 역할-농업혁신의 성장” 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이 회의의 참관기이다.

(편집자註)

人間資源 개발을 그 취지로 하는 「아시아地域 훈련 및 개발기구」는 비올빈의 마니라에 本部를 두고있는 民間機構인데, 본 第8次 會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 에서는 工業發展, 農業發展 그리고 企業家發展의 3개分科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외국인 1백명 가량을 포함, 3백50여명이 참가했는데 대부분이 정부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교육훈련담당자들이었다. 논문 발표자는 20명으로 이중 필자를 포함한 16명이 세계 각국에서 초빙되었다.

필자는 농업발전분과에서 「연구개발의 역할-농업혁신의 성장요소」란 주제를 발표했는데, 특히 2시간에 걸친 토의와 워킹샵에서는 韓國의 경험을 중심으로한 매우 활발하고 진지한 질의응답이 전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논문 그 자체에 관한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필자에게 질의 내지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는바 필자는 이에 우리의 실정을 적절히, 그리고 깊이 있게 내세우면서 대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가) 韓國의 모범적인 농촌개발, 그리고 경제발전 내지 국가발전이 北韓과의 대치에 의해 자극 동기유발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統一이 되면 發展은 끝날날 것이 아닌가?

(나) 韓國의 농업부문의 연구개발 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美國의 경제원조 덕분이 아닌가?

(다) 韓國발전의 한 원천인 한국인의 규율, 성실근면, 악착같은 등이 독특한 정치적 통제때문인

가. 아니면 文化的 배경을 지닌 것인가?

(라) 새마을 운동이 농촌지도사업에 힘입은 바 없다고 보는가? 기타 성공에 기여한 변수는 무엇인가?

(마) 새마을 운동의 이식 또는 이전을 농촌개발의 모형으로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다른나라(말레이시아)에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학술적 성격의 것을 유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대략 본인이 부연적으로 홍보적 안목에서 천명한 것이다.

(가) 북한과의 군사 및 외교적, 정치적 냉전은 동기유발의 한 계기가 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出費를 강요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에서는 社會開發에 크나큰 중점을 두고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도 한국에서는 강인한 국민적 노력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효율적 발전이 기대된다.

(나) 韓國의 농촌지도사업은 1955년에 미국으로부터의 국제적 농업기술 이전에 의한 것인바, 工業化的 발전에 수반된 농업부문의 변동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도 있으나 슬기롭게 대처해가고 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 성공의 밑거름, 다시말해 先行條件的인 必要조건중의 하나가 된것은 사실일 것이다.

(다) 한국동란 직후에 전개된 美國과 기타 우방국의 대량·무상적 경제원조가 끝난지는 이미 10여년 가까이 되고, 이제는 국가간이라기 보다 민간적차원의 상업차관에 의하여 경제협력력이

민간주도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新生工業國家로 강력히 탈바꿈하고 있다.

타) 규율, 근면, 성실은 文化的인 것이며 과거 박대통령정권 말기에는 硬直인 정치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던 것을 부인 못할 것이나, 오늘날의 새대통령 영도하의 새政府는 과거의 역사적인,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의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하여 민주적 국민합의하에 과감하게 개방체제로 착착 발전하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대중참여가 즐기차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룩되고 있는 것이 현대의 韓國이다. 물론 수출주도적 경제개발과 복지·정의사회의 구현이 국시이다.

타) 새마을운동의 발전단계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제 1 단계는 公務員의 총력동원을 기적으로 하는 강력한 정부주도적인 초기시발의 단계로서 생활 및 환경기반 조성적인 물리적 과제 중심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락지도자가 부각, 발굴되었으며 훈련되었다.

그리하여 제 2 발전단계는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밑으로부터”의 自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게끔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제 1 단계 과정이 없는 제 2 단계로의 발전은 결코 상정될 수가 없는데,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다른 국가에의 移轉에서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에누리없이 염두에 두고 분석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타) 녹색혁명에 의한 이익이 富農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많은 지역국가에서 보는데와 같이, 예컨대 농지개혁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럴것인데 韓國은 이미 30년전에 이를 시행한바 있으므로 이와같은 역기능은 극히 적다. 이밖에 諸農촌 下部구조, 농업투입체의 생산·배부, 가격 지지정책 등 잘 정비되어 있는 셈이다.

타) 韓國은 西歐先進國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이전받아 적응화하고, 日本으로부터 다시 기술이전하여 크게 시차를 줄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美國을 위시한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기술이전을 등한히하고 있지는 않다.

요컨대 인적자원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농업연구개발 체제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아시아지역이나 여타의 관심있는 개발국을 위한 開發敎訓과 開發移轉의 원천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

타) 韓國의 농촌은 거의다 電化되고, 흑백 TV의 보급도 포화상태이며 라디오는 이제 비인기품목에 속한다. 농촌지도공무원의 경우, 20여년 전에는 자전거, 그다음에는 오토바이, 현재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바, 指導는 特技化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농촌부락에 차량이 다 들어갈도록 도로가 나있고 (새마을운동으로) 행정전화도 다 들어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거대한 연구개발 및 지도기구인바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체제건설의 보기이다.

타) 韓國의 농업연구개발의 상징적인 “녹색혁명”의 주축인 “통일벼”는 비올빈의 국제米作 研究所에서의 국제적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적응연구개발화한 것인데, 이른바 “제 2世代的 問題”로 최초 1977년에만 획기적 성공을 거둔셈이나 韓國의 연구개발기구는 총력을 기울여 새로이 적응된 품종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자체 연구개발 능력면에서 농촌진흥청은 이미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각대학도 협동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 약간의 일상적 관찰과 印象

이번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가지 느낀바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韓國을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개발국”이라고 단언하며 개회사를 한 副총리도 韓國 이야기를 꺼냈고 모든 공식, 비공식회의 또는 식사시에도 韓國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대하고 피부로 느꼈다. 이런 점은 시장의 상인이나 택시운전사들도 매 한가지였다.

다시 말하면 韓國이 가장 평판이 큰 것으로 느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의 건설한 건설업체의 활동에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의 눈부신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일반적인 감명을 받았을 것임도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1주일 체재기간중에 호텔에는 한가지 英子신문이 매일 무상배부되었는데 하루도 쉬지않고 한국관계 기사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한국인 아니냐?”고 알아볼 정도로 韓國人도 이제 국제화시대에서 그 지위와 평판이 높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번 국제회의의 전기자를 통해 말레이시아政府가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즉 말레이시아는 그들의 전통적인 농민 대부분이 순수 말레이시아인으로 이들의 낙후된 농촌사회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인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적 또는 형식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기술이전하는 접근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우 복잡한 이나라 농촌이나 사회에 관한 전문가에 의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몇가지 필자를 당황하게 한 일도 있었다. 그중에서 회의에 참석한 그곳 농촌개발실무급 공무원들이 서울大農大의 새마을종합연구소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보고서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것과 구득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水原에 와본 일이 있는 어느 말레이시아 공무원은 농촌진흥청의 계획에는 참여했는데도 바로 옆에 서울大농대가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였으며 다른 한 공무원은 임목육종연구소에 왔었으나 농촌진흥청이나 농과대학은 소개받지 못하였다고 실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 ◇ 약간의 建議

필자가 이번에 참석한 아시아地域훈련 및 개발기구(본부: 필리핀 마닐라市)에 우리나라 생산성본부는 물론 대기업의 人事 및 행정담당자들, 그리고 정부의 교육훈련담당 간부급을 가능한 한 가입시켜 참석하도록 권고하기를 바란다.

대만조차도 여러명의 정부 및 민간기업의 대표가 와 있었는데 아세안外交의 일환이자 경제실리 외교의 場이기 때문이다.

국제회의 또는 기술원조 목적을 위한 우리나라 政府의 파견대표(정부차원)의 선정도 신중

을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식적 수준의 대표의 기술원조적 파견은 그 효율성이 극히 낮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며 특히 農業界의 경우, 초청은 국제의례상 의무부로 오고 외무부는 농수산부에 이첩, 농수산부는 농촌진흥청을 위주로 기타의 산하기구로 기계적으로 넘기게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大學등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인바 보다 고차적인 政策수준에서 문교부 당국과 농수산부 사이에서 이것이 조정되게끔 대학당국이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영어를 조금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며 전공분야의 적격자가 참석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은 매우 有望한 것으로 보였는데 建設業뿐만 아니라 商品수출에도 가능성이 크다고 볼때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現地の 신문, 텔레비전등 매스컴에의 廣告투자가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농촌개발 또는 새마을운동의 移轉을 위한 기술협력은 강력히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그곳 실무중간관리적 관계자와 우리 전문가 사이에 기탄없는 질의응답식 토론이 베풀어져야 할 것이다. 전신효과적인 선전일변도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우리정부나 민간기구에서 기술원조 계획으로 초청하는 개발도상국가 대표는 최대한으로 인접적인 관련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얼굴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통합적 계획이 기획, 집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는 아마도 고차적인 정부부처 수준에서 조정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기술훈련계획이 될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농촌개발 기술원조에 있어서 기술학적인 것은 기껏하여 농기계의 조작, 수리등인 반면 농촌개발체제, 새마을운동 체제의 국제적 이전이 그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농촌사회학(농촌개발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그리고 농업경제학(농업개발경제학)등의 학제적 접근이 가일층 강화되어야 하며 또 전문연구소가 농과대학에 마땅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사회학에는 이른바 농촌지도론도 포함되는 것임을 부기한다.